

# 나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성평등·역량·안전 강화

365일 시간제 보육 등 정책 우수 평가 여성·남성 정책 균형 참여 돌봄 안전 구현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등 5대 목표 12월 여가부 협약 시민 체감 정책 확장

나주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돼 성평등·여성 역량·안전 강화에 힘을 쏟는다. 나주시는 최근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정책 추진 의지, 기반 조성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심사해 최종 지정한다. 5대 목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됐으며 지난 9월 그동안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종합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 다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있어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 장비 지원', '나주형 365일 시간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 등 관련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중 365일 시간제 보육은 맞벌이, 주말·야간 근무, 응급 진료 및 입원 등 부모의 긴급한 사정으로 직면한 자녀 보육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사업이다.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연중무휴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육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3년 1호점인 빛가람동 킨더브레인어린이집 시작으로 올해 들어 남평읍, 송월동에 시간제 보육실 2·3호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에 이어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에 선정돼 26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장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 여성 일자리, 자녀 돌봄을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설치 화순군 청풍면, 화재 위험 대응



지난 20일 화순군 청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정석·민간위원장 이선형)와 청풍면 남·녀의용소방대원들이 겨울철 화재 위험에 신속 대응하고자 투척형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25일 화순군 청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따르면 이번 투척형 소화기 설치 사업은 화재 발생 시 화재감지기가 연기 및 열기를 감지해 위험신호를 알리면 투척소화기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관내 취약계층 18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소화기 설치 작업에는 최창락·김선미 남·녀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가해 소화기 설치 및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선형 청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특별히 올해 겨울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투척형소화기를 설치해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구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석 청풍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고생해 주신 의용소방대원들과 복지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청년 축산인 성장캠프 성료 함평군, 인적 네트워크 형성

함평군이 지난 22일 함평군립미술관에서 '2024년 소통의 장, 청년 축산인 성장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기술 중심의 전통적인 축산 교육을 넘어 청년 축산인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관내 청년 축산인이 참여했다.

캠프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군수님과 의토크콘서트, 다양한 특강과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청년 간 유대감을 높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함평군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축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청년 축산인들이 미래 축산업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청년 축산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나주시, 7월1일 기준 6527필지

나주시는 7월1일 기준 6527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이동된 토지에 대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나주시 시민봉사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나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3일 최종 조정·공시되고 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시민봉사와 부동산관리팀(061-339-8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김용의 기자



함평읍 관계자들이 '함평 겨울밤 빛축제' 개막을 앞두고 읍 시가지 일원에 빛 조형물을 장식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 함평읍사무소, '겨울밤 빛축제' 준비 한창

함평군 함평읍사무소(읍장 정화자)가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4 함평 겨울밤 빛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에서는 '2024 함평 겨울밤 빛축제'와 연계해 읍청사와 읍 시가지를 다채로운 빛 조형물로 장식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빛축제 개막을 앞두고 함평읍사무소

직원들은 함평축협 삼거리와 학다리교 정문 앞 회전교차로에 20여개의 미니트리와 전구 장식으로 불거리를 조성했다. 함평읍 일원 3개 구간(함평교~농협군지부, 황소주차장~농협하나로마트, 함평교~함평여중사거리)에 가로등주에 조명을 설치, 해질녘 아름다운 불빛으로 반짝이는 읍 시가지를 조성했다. 함평교와 영수교 양안에는 네트조명을 설치한 데 이어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

식화인 '포인세티아'의 조화 1000여주를 국화와 함께 식재해 '겨울밤 빛축제'에 걸맞은 경관을 조성했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겨울빛 축제와 함께 읍내 축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며 "축제장에서 읍 시가지로 이어지는 화려한 빛 조형물과 함께 함평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읍내 상가로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 진행 화순팜, 12월13일까지

화순군은 26일부터 12월13일까지 화순팜에서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객 감사 이벤트는 △할인쿠폰(전 상품 30%·신규회원 2000원) △댓글 이벤트 △구매후기 이벤트로 구성한다. 할인쿠폰은 화순팜 회원들에게 전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3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신규회원 1000명에 한해 추가로 2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댓글 이벤트는 올해 가장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댓글로 남기거나 구매 후기를 남긴 회원 중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 화순팜 적립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팜 누리집(https://www.hwasunfarm.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은 "2024년 회원분들의 관심 덕분에 화순팜이 역대 최고 매출인 30억원을 달성했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 함평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함평군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내 터미널 2개소(함평·문

장)와 9개 읍·면 시가지에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특별단속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는 군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문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운전자들께서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준수해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